

2018학년도 제4회 학교운영위원회(임시회)

# 회의록

위원장

학교장

김석국

남상근

일시 2018. 12. 13.(목) 18:00

장소 교장실

참석위원

안건

제1안 2018학년도 겨울방학 중 돌봄교실 운영계획(안)  
제2안 2019학년도 방과후학교 업체위탁 운영 여부(안)  
제3안 2018학년도 유치원 겨울방학 방과후과정 운영계획 변경(안)

## 회의진행내용

- 간사 :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학년도 제4회 쌍치초등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교장선생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 학교장 :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 간사 : 다음은 위원장님의 인사말씀과 개의 선포가 있겠습니다.
- 위원장 :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위원 7명 중 7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학년도 제4회 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 다음은 안전심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심의 안전은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1안 2018학년도 겨울방학 중 돌봄교실 운영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 그럼 먼저 제1안 2018학년도 겨울방학 중 돌봄교실 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사 : (제안설명을 하다...)
- 위원장 : 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 혹시 만약에 방학 돌봄을 우리 아이같은 경우에 방학 돌봄을 가고 싶지 않다고 그냥 집에서 편하게 있고 싶다고 해서 그러라고 저희는 신청을 안 했는데 이 바이올린 같은 경우에 방학 때 여자선생님하고 남자선생님하고 두분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지금. 그때도 똑같이 두 분이 가르치시는 건지요?

## 회 의 진 행 내 용

- 교사 : 오시는 선생님은 누가 오시는지 제가 아직은, 현재는 요일별로 돌아가시면서 두분이서
- 위원 :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바이올린은 배우는데 스트레스는 받는 것을 많이 느낄수 있었거든요. 아이들 입에서 하는 소리가 수요일만 되면 학교를 가고 싶지 않는다고 계속 가고 싶지 않다는 얘기를 한명만 아니라 여러 명이 하는데 도대체 왜 그러느냐 물어보니 남자선생님께서 너무 강하게 무섭게 하신다고 수요일이 스트레스 받는다고 다 가기 싫다는 거야 애들이 애기 엄마들이랑 얘기해 보면, 계속 프로그램이 이렇게 연결이 되면 방학때 안 가는 애들 돌봄을 안 하는 애들은 혹시 배우는 데 차질이 생길까요?
- 교사 : 상관없습니다.
- 위원 : 그래요?
- 학교장 : 1학년들은 방학 때 바이올린은 안 하잖아요.
- 위원 : 3학년?
- 학교장 : 2, 3학년은 하고, 근데 지금 원래는 프로그램을 많이 안 하고 미술하고 로봇만 집중적으로 해서 구일이니까 미술 같으면 한 작품만 끝내고 내년에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니까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미술 강사가 못 오는 날이 있어 그래서 미술 빠지는 날에 넣다 보니까 1월 10일하고 11일에 생활체육하고 바이올린이 들어갔거든요. 돌봄만 하기 그렇고 졸업식때 재학생들이 졸업축하곡도 하나 연주해 주기로 하고 해서 연습도 할 겸 해서 우선 넣어 놓은 것이고, 이번에 아이들 만족도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는 좋아할 것 같은데 아이들은 상당히 낮게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생활체육 같은 거 애들은 나가서 놀라고 하면 되게 재미있어 하거든요 이유는 결국 강사가 문제야 애들하고 얼마나 재미있게 놀아주느냐가 이것이 문제거든요. 지금 있는 강사들은 제가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은 없고 해서 아마 위탁도 나오지 않은 내년에 가면 그리고 바이올린이나 우크렐레나 악기 하나 정도는 애들 심성이라든가 예체능 쪽으로 특기로 하기 싫다고 해도 학교에서는 교육적으로 권장을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강사 선정이 제일 문제인 것 같고 그래서 내년에는 잘 되리라 생각을 해요. 방학때는 그렇게 돼서 바이올린이 들어갔어요.
- 위원 : 바이올린을 한다면 참석을 안 한 애들은 혹시 수업이 뒤쳐져서 지장이 있지 않을까 해서 물어봤습니다.
- 학교장 : 아니예요.
- 위원장 : 또 다른 질문이나 질의사항 있습니까?

## 회 의 진 행 내 용

- 위원 : 아이들 예절 교육은 어때요? 훈몽재를 통해서 하던가,
- 학교장 : 훈몽재를요?
- 위원 : 네
- 학교장 : 제가 시산에서 하고 왔잖아요. 훈장님 오셔서 일주일에 한시간씩 해 줬거든요. 예절만 한 것은 아니고 한자도 좀 가르쳐 주고 서예도 좀 해 주시고 그랬거든요. 훈장님은 열의를 가지고 서당식으로 해서 열정적이고 정말로 좋아한다고 잘 가르치셔. 근데 아이들은 그것 좀 없애달라고 그러거든요. 너무 딱딱하니까?
- 위원 : 애들 입장에서는 그러는데, 집에서부터 부모가 하나에서 열까지 다 책임져서 가르쳐 줄 수 있는것도 있지만 강제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집에서. 단체로 같이 해가지고 딱 자세를 잡고 하시는 분들이 앞에서 하시면은 아이들이 틀리거든요. 일단은 아이들한테 서예같은 것을 쓰라고 하면 아이들 자체는 지금은 무리지만은 몸으로 하고 말로 하는 것은 백프로 다 할수 있거든요. 쓰는 것은 못하지만은.
- 학교장 : 올해 갔다 왔던가요? 1박 2일요.
- 교사 : 작년에요.
- 학교장 : 작년 여름에? 예절은 단기적으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습관화가 되고 몸에 배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 위원 : 일주일에 한번이라든지 시간적으로 해서 두시간을 한다던가 전학년을 통틀어 해가지고 고 잠깐 잠깐 이지만은 그것이 자기몸에 배고 하다보면은 부모 잘 하는 것도 배우고 벌써 말투부터가 달라질 걸로 알고 있거든요.
- 학교장 : 돌봄교실 쪽에서도 가르칠 수 있도록 내년에 한번 볼게요
- 위원장 :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 위원 : 없습니다.
- 위원장 : 일단 그럼. 2018학년도 겨울방학 중 돌봄교실 운영계획(안)은 특별히 바뀔 부분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더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시죠?
- 위원일동 : 네
- 위원장 : 제1안 2018학년도 겨울방학 중 돌봄교실 운영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 의 진 행 내 용

○ 위원장 : 바로 이어서 제2안 2019학년도 방과후학교 업체위탁 운영 여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사 : (제안설명을 하다...)

○ 위원장 :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 위원일동 : (침묵)

○ 위원장 : 질의할 위원 없으시죠?

○ 위원 : 없습니다.

○ 위원장 : 학부모님들이 찬성으로 18분이 해주셨고, 제가 알기로도 그 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봐도 질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없으시죠?

○ 위원일동 : 네

○ 위원장 : 그럼 모두 학교의견에 찬성하였으므로, 제2안 2019학년도 방과후학교 업체위탁 운영 여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 바로 이어서 제3안 2018학년도 유치원 겨울방학 방과후과정 운영계획 변경(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사 : (제안설명을 하다...)

○ 위원장 :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 위원 : 유치원 선생님도 쉬셔야지요.

○ 교사 : 감사합니다.

○ 위원장 : 그럼 유치원은 12월 18일부터 1월 18일까지 하는 건가요?

○ 교사 : 네. 1월 18일까지 아이들은 계속 나와요.

○ 학교장 : 1월 18일까지 하고 일주일간 방학하고 그다음주 개학하고 그 다음에 똑같이 방학하고

○ 교사 : 2월달에도 계속하고

○ 위원장 : 초등학교는 2주간 하잖아요?

## 회 의 진 행 내 용

○ 교사 : 유치원은요 방과후 운영을 하계끔 되어 있어요.

○ 위원장 : 아

○ 위원장 : 질의 더 이상 없으신가요?

○ 위원일동 : 없습니다.

○ 위원장 : 그럼 모두 학교의견에 찬성하였으므로, 제3안 2018학년도 유치원 겨울방학 방과후과정 운영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의 사 봉 3 타 -----

○ 위원장 : 기타 안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학교장 :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번에 한번 말씀 드렸었는데 저번주엔가 교육장님이 과장님과 함께 학교에 오셨어요. 학교 둘러보고 필요한 부분과 문제점이 있는가 와서 같이 이야기 하고 그랬거든요. 내년에 사실 이쪽에 관사 허문 부분에 창고를 지어달라고 미리 말을 해놨는데 땅 소유권 문제 때문에 해결이 안 되어서 아직은 시작을 못한다 미뤄져 가지고 땅문제는 곧 해결이 될 것 같고, 내년 예산에는 안 잡혀 있고 내후년 예산에는 창고를 지어 주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고 내년에 바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급식소 식생활관 가는 곳에 비 안 맞게 쳐마해서 도복도 만들어주는 부분하고 교문에서 유치원, 버스 차고 있는 데까지 아스콘으로 포장하는 거 그 부분을 내년에 예산에 반영해서 하는 걸로 해 주셨어요.

덧붙여서 포장을 하다보면 교문에서 버스차고 가는 쪽으로 뱃나무 2그루 있잖아요. 그것을 잘라내야 아무래도 다니는데, 못 나갈 것 같아서, 그리고 이것이 오래되어서 썩었어요. 보면 알지만. 그 부분을 의견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제가 동문회장님께는 말씀을 드릴려고 전화통화를 한번 했더니 바빠셔서 지금 못 오시고 계시네. 시간 나시면 학교 들어서 커피한잔 하시게 학교 오시라고 했거든요. 학교 오시면 제가 말씀을 드릴려고. 나무를 베어 놓으면 보고 싫으니깐 앞쪽에 울타리 형식으로 큰 나무 서너그루 심고 밑에 철쭉 뽑아서 옹골것들이 있더라구요. 앞쪽에 꽃밭을 만들어서 해 놓으면 괜찮을 것 같아서 보기 싫지는 않을거예요. 전에도 부위원장님 베어 버리자고 했어요?

○ 교사 : 네

○ 위원 : 교문앞에 있으면 뭔가 좋은 기운을 막는 것 같아요.

○ 위원 : 걸리적 거리고, 차가 들어오는데 위험하고 많이 불편하니까

○ 학교장 : 하나는 교문에서 보면 딱 가운데에서 가려져 있고, 또 하나는 차 가는 길에 불편하고

## 회 의 진 행 내 용

- 위원 : 학교가 참 그렇게
- 위원 : 그렇다고 학교 입구를 다른 데로 옮길 수도 없고
- 위원장 : 이것은 안전에 있어서 상정하고 그럴 것은 아니잖아요?
- 학교장 : 네. 아니 느닷없이 교장오니까 나무 베어버렸다고 하니까. 학부모님과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같은 생각이시더라
- 위원장 : 교장선생님 말씀대로 동문회장님하고 사무국장님하고 동문회장님이 한번 얘기는 하시더라구요 만나서 얘기를 해보자. 어떤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논의해보자고 말씀하시더라구요. 그때 동문회장님께 말씀 드리고 추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기타 안전 없으시지요?
- 위원일동 : 없습니다.
- 위원장 : 고맙습니다. 그럼 모두 이의 없으므로, 2018학년도 제4회 쌍치초등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종료시간 18:20, 기록자 )